碩士學位論文

*The Catcher in the Rye*에 나타난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

指導敎授　　卞 鐘 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吳　景　花

2002年　8月

*The Catcher in the Rye*에 나타난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

指導敎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吳　景　花

吳景花의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日

審 査 委 員 長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The Catcher in the Rye*에 나타난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

오 경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변 종 민

*The Catcher in th Rye*는 Salinger의 대표적 장편소설로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주인공 Holden을 통해 배금사상, 사회의 퇴폐성향, 인간 소외현상 등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부패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간을 지켜주고 이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마지막 희망은 어린이의 때묻지 않는 순수성과 가족의 따뜻한 사랑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감한 감수성의 소유자 Holden이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인식해 나가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Holden은 거짓된 세상에 염증을 느끼며, 자기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외로움을 느끼며 방황한다. 그러나 동생 Pheobe의 진정한 애정과 사랑은 그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Holden은 순수한 사랑으로 불완전한 현실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을 배우게 된다.

Holden이 겪는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동료간에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성숙한 16세 청소년의 갈등과 좌절을 겪으면서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삶을 이해하는 지혜와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Ⅰ. 서 론 …… 1

Ⅱ. 산업사회와 의사소통의 한계 …… 7

Ⅲ. 가정적 차원의 의사소통 : 애정의 결핍 …… 10

Ⅳ. 교육적 차원의 의사소통 : 이해의 부족 …… 15

Ⅴ.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 허위와 위선 …… 23

Ⅵ. 의사소통의 진실성 : 애정과 이해 …… 36

Ⅶ. 결 론 …… 46

참고문헌 …… 50

Abstrac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The Catcher in the Rye(1951)는 J. D. Salinger(1919~)의 대표작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열 여섯 살의 고등학생 Holden Caulfield가 학교를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2박 3일 동안 겪은 일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51년에 출판된 당시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모았고, 그 후 10년간이나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Granvill Hick이 "내가 알기로 수백만의 미국 젊은이들이 어떤 작가보다도 Salinger에게 가까움을 느낀다."[1]라고 말한 것처럼 Salinger는 당시대의 젊은이들의 대변자로서 깊은 공감을 일으킨 작가였다. David Leitch 교수 또한 "The Salinger Myth"란 논문에서 Salinger를 미국문학사에 있어서 현대적 신화를 창출한 저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alinger는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예민하고 반항적인 사춘기의 주인공이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세계에 반항하며 순수와 진실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십대의 생생한 언어로 들려주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을 발표한 뒤 「Time」지의 표지로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으며,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소설이 예술적인 성공과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당시 미국의 시대적인 상황도 일정하게 작용하였다. 전쟁

---

1) Granville Hicks, "The Salinger Industry," *Nation,* CLXXXZX (November 1950), pp. 360-363.
2) David Leitch, "The Salinger Myth," *Twentieth Century*, CLXVIII (November 1960), 428-435.

이 끝난 후 미국 사회는 정신적인 공허와 가치의 혼돈을 경험하였다. 가치관의 혼란, 전쟁에 대한 공포와 비인간화 현상 등이 미국인들이 삶을 지배하였고 이러한 정신적인 방황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Salinger는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기성 세대에 반항하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생활과 문화를 그들의 언어로 정직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소설에서 Salinger는 1950년대 미국의 십대들이 사용하는 속어와 비어, 심지어는 욕설까지도 거침없이 사용하여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학부형들은 이 작품이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는 것을 금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퇴폐성향과 나태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해로운 작품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비난은 오히려 역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비평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서평과 함께 논문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기현상을 낳게 하였다. 양산된 서평과 비평논문은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뉘어, 서로 간에 논박하는 글까지 합하면 150편에 달했다.

이 소설에 대한 비평은 주로 Holden이 실존적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인공이 청소년기의 반항적이면서도 순수한 측면에서 인식되는 주변 또는 성인 세계의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자기 실존의 의미를 찾게 되는 과정은 바로 20세기 문학의 전형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자아 또는 실존의 의미를 찾아 정신적 여정을 겪는다는 면에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동양의 선불교(Zen

Buddhism)에서 그 사상적 근원을 찾게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온 Salinger연구는 선불교 사상에 기초를 둔 내용들이 많다. 성인 세계의 경험이 없는 미숙하고 순수한 주인공 Holden의 의식적 여정을 고려할 때 이 소설의 연구가 자아발견 또는 실존적 자아의 추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은 지극히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The Catcher in the Rye*는 16세 청소년 Holden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성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Howard M. Harper. Jr는 이 소설을 "진입(initiation)의 이야기"[3]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인가? 문학에 있어서, '진입'이란 순수의 세계에서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류의 소설에서는 성인의 문턱에서 불안해하는 청소년이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년에서 성인으로의 탈바꿈은 여러 문화에서 성인의식의 통과의례절차로 의식화하여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탈바꿈은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수반한다. 순수에서 경험의 세계로 진입하는 주인공은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성(sex)을 경험하게 되며, 악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성인세계로의 여행에서 소중한 자아인식 또는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바로 주인공의 임무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시작하는 여행의 과정에서 주인공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험을 거쳐 자아를 발견해 나간다.[4]

소년에서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Holden은 가정적으로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Haward M. Happer Jr., *Desperate Faith*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7), p. 6.
4) *Ibid.*, p. 135.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Holden이 겪고 있는 소외의 상황과 현상들은 사회적이거나 혹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한다. 그가 겪고 있는 소외와 갈등이 사회라는 외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의 민감한 자아의식에 의해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주인공 Holden이 겪는 소외와 갈등은 주로 주변 인물 및 사회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의사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자기만의 순수한 내면의 세계에 머무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Holden에게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주변 인물들은 진정한 교감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극히 형식적이면서도 피상적인 인간관계와 허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상황 속에서 Holden은 가슴 답답한 단절감과 고립감을 느끼게된다. 따라서 학교, 가정 또는 사회에서 겪는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주인공 Holden이 지향하는 정신세계의 측면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가 바라는 인간 세계의 이상향을 이해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논문은 주인공 Holden의 겪는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소설의 주인공 Holden Caulfield가 겪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인 갈등의 양상을 통해 현대 물질 문명의 부정적인 양상을 고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Holden의 소외와 갈등의 원인을 의사소통의 불능의 문제로 봄으로써 현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대화단절의 양상들을 고발하고, 그 극복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Holden의 인간 존재 조건의 재인식과 자아성숙을 통해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가 지향하는 열린 사회나 건전한 사회와 같은 인간적 이상주의적 사회로의 이양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불능 또는 대화단절 상황의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Holden이 가정 내에서 겪는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를 다룬다. 사회적인 체면과 물적 가치만을 지향하는 속물화된 아버지,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무관심한 어머니, 순수한 청년 문학도에서 헐리우드로 팔려가 버린 작가인 D.B.형 등,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살펴보고, Holden이 겪는 애정의 결핍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Holden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허위와 기만, 학생의 가정환경과 성적만으로 학생의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리는 형식주의, 그리고 속물화된 교사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Holden이 Pency Prep을 떠나 거대한 빌딩의 정글인 New York시를 배회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위선적인 모습과 그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들이 좌절하게 되면서 겪는 소외와 갈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Holden이 대화의 단절로 인해 억압되고 소외되어 있는 심리적·사회적 상황을 여동생 Pheobe와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고, 그가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로의 이양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토록 학교, 가정, 사회에서 겪게 되는 청소년의 소외의식과 갈등 그리고 이런 현상의 근원이 되고 있는 대화단절 또는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형식주의, 기만과 허위, 애정의 결핍, 속물 근성 등으로 가득 찬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고발하면서 순수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간미와 사랑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지향점을 발견하는 데 많은 시사를 주게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산업사회와 의사소통의 한계

Jerome David Salinger가 *The Catcher in the Rye*를 발표한 1951년은 세계 2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모든 이념에 대한 환멸과 인간 구원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불안감과 허무주의가 짙게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2차대전 직후의 한국 전쟁, 동·서의 냉전, 원폭 공포 등은 서구의 이성문명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서는 40년대 말경부터 50년대 초까지 이른바 매카시즘이 활개치고, Norma Mailer가 *The Naked and the Dead*(1958)에서 "미래의 도덕은 권력의 도덕(the future morality is power morality)"[5]라고 예언했듯이 권력 앞에 미국인의 인권이 점차 침해받게 되어 그들의 자유와 사회정의가 점차 경시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아래 미국의 경제는 전쟁 중에 입었던 막대한 손실와 낭비에서 벗어나 점차 자유화 산업의 부활로 인해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물질문명화 되어가고, 술과 성의 난무로 사회 문화는 퇴폐성향이 강했으며, 속물근성과 , 비인간화, 위선의 탈을 쓴 허상과 허실만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전통적인 사회윤리와 가치체계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전후세대의 전형적인 몰가치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 후의 물질적 번영과 놀라운 대중매체의 발전은 물질주의 사상과 모든 사람이 피상적 형식주의에 순응하는 집단주의

---

5) Norman Mailer, *The Naked and the Dead* (Austi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 255.

문화를 발달 시켜 대량의 자아 상실자들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J. D. Salinger를 비롯한 몇몇 신예 작가들은 물질문명사회의 외곽에 서서 방황하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자 하였다. 이 시대의 작가들은 50년대 초에 제각기 장편소설을 발표하면서 그 시대의 도덕성과 시대의식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Salinger는 전후의 두 가지 현상인 혼돈과 순응 속에서 사회 전통을 거부하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인간 정신의 전통을 긍정하는 정신 탐구의 소설을 쓰고자 하였으며, 특히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개성을 집단에 안주시켜 자아를 스스로 포기하는 대중들과는 달리, 자아를 추구하는 반항적인 주인공 Holden을 등장시켜 현대인의 자아상실을 고발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모든 비리·위선·기만·부정·허식·불합리 등을 "엉터리(phony)"란 단 한마디 말로 집약하여 비판하였다. 또한 과다할 정도로 젊은이의 은어와 속어의 구사로 기성세대의 진부하고 위선에 찬 언어에서 결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harles H. Kegel은 Holden의 정신적 갈등은 바로 "언어단절(Incommunicabilty with others)에 있다"[6] 고 진단하면서 이 소설의 주제는 언어의 부재에 있으며, 주인공과 객체와의 언어단절에서 현대인의 비극성을 엿볼 수 있고, Holden의 방황은 바로 타인과의 언어불통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소설은 또한 Holden Caulfield의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언어소통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 "[7] 라고 진술하며 이 소설의 주

6) Charles H. Kegel, "Incommunicability in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Western Humanities Review*, XI (Spring, 1957), p. 188.

제 의식을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Rorbert G. Jacobs도 이 소설의 플롯이 주로 Holden의 의사소통 불능과 그 탐색의 과정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Holden이 15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장면이 있지만 그 모두가 전화번호의 부정확이나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서 야기된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사전달의 불능으로 인한 대화의 부재, 아니면 언어단절 현상을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Holden이 경험하는 언어부재는 사회불신(social distrust)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Holden이 이 작품의 종말에 가서 농아자(a deafmute)가 되겠다는 정체성 추구의 의지를 밝힌 것은 언어단절이 Holden의 주된 갈등의 원인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Ibid.,* 188.

Ⅲ. 가정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 애정의 결핍

Holden은 고등학교를 네 번이나 퇴학당했고 공부는 못하며 흡연광에다 어설픈 어른 흉내를 내며, 호텔과 술집을 드나들고 여자나 유혹해 보려는 돈 많은 집의 문제아다. 그에게는 부모님의 걱정도 선생님의 충고도 관심 밖이 일이며 보통의 순진하고 성실한 고등학생과도 거리가 멀다. 다섯 과목 중에서 네 과목이나 낙제하는 바람에 네 번째로 다니던 학교에서도 퇴학당했는데도, Holden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반성하는 빛은 없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투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Holden에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제아가 될 만한 여건이 없다는 점이다. 큰 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아버지와 신경이 조금 예민한 어머니,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형, 총명하고 귀여운 여동생 등, 부유하고 안락한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끔찍하게 사랑했던 남동생 Allie가 백혈병으로 일찍 죽었다는 사실 말고는 Holden이 정신적으로 방황해야할 이유가 없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토록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제가 없을 듯한 가정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변호사인 아버지는 황금의 노예가 된지 오래다. 게다가 위선적으로 사회적인 체면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꿈꿔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는 원래 신경이 날카롭고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가족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Holden의 부모님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이다.

・・・부모님 모두가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내가 당신들의 신상에 관해 늘어놓는 것을 안다면 아마 기절하고 말 것이다. 특히 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과격하며 신경질적이다. 어머니 역시 그에 못지 않지만.[8]

이 부분에서 부모님은 Holden에게 정신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Holden은 동생 Pheobe와의 대화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변호사는 어때? 아빠처럼?"

"변호사라면 괜찮지. 하지만 끌리진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변호사가 꼭 죄없는 사람을 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일 보다는 돈을 모은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브리짓 놀이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마티니를 마신다든지 명사인 척 한다든지 그런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거지. 더구나 사람을 구해 주고 싶어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됐다면 더 문제겠지. 말하자면 재판이 끝나면 신문기자나 여러 사람에게 유치한 영화처럼 칭송을 받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는 야심말야.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엉터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니?"

나는 내 말을 피비가 알아들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피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아빤 오빨 죽이고 말꺼야." 피비는 다시 말했다. (247-248)

8) J. D. Salinger, *The Catcher in the Rye,* 박상용 역주 (서울: 신아사, 1986), p. 43. 이하 본문은 Text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만 명시키로 함.

Holden에게서 아버지란 존재는 예민하고 과격하고 물질적으로만 성공한 세속적인 변호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Pheobe가 Holden의 퇴학사실을 알게 되면 “아빤 오빠를 죽일 꺼야”라고 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이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왜 Holden이 자신과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지 알려 하지도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Holden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수입원일 뿐 인생의 수호천사나 조력자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므로 Holden은 어린 동생 Pheobe만큼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다.

어머니 또한 예민하고, 동생 Allie의 죽음으로 더욱더 신경질적이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Holden은 어머니에게조차 맘을 열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Holden은 퇴학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즉 Holden과 부모 사이에선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오손도손한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Holden이 훌륭한 작가가 될 것으로 가장 기대를 걸었던 형 D.B.는 청년 문학도인데 어느 날 헐리우드로 진출해 나감으로써 -Holden은 형이 돈에 눈이 어두어 헐리우드로 팔려갔다고 표현한다- 탁월한 재능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Holden이 이 작품 서두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화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신 언급하지 마라.”(44)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Holden은 그 주변의 허위와 엉터리로 우글거리는 세상을 민감한 감수성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인식해 나가고 또한 인식의 단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전락해 이제는 인간 관계마저 물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가치로 결정되어 가는 사회에 구토를 느끼며 그 곳에서 떠나고자 한다.

Holden의 사회를 향한 이러한 반항을 학자들은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Maxwell Geismar는 “외로운 부잣집 자녀의 유별난 반항, 즉 할 일 없는 계층의 감정을 특이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9] 이라고 Holden의 반항의식을 단순히 신경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James Lundquist는 “Holden은 반항아다. 그러나 그의 반항에는 이유가 있다.”[10]고 말하면서 Holden이 사회에 염증을 낼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부패한 현실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한 대학생은 “Holden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우리 대부분이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 그는 오직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을 좋아한다. 그는 순수하기 때문에 가치이하의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11]라고 말하면서 Holden의 결벽증적 순수함을 옹호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olden의 반항의식의 근원을 Dan Wakefield는 "Holden이 역겨워하는 것은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을 가장한 모습들을 ‘phony'라고 부르고 있다"[12] 고 했다. 'phony'로 가득 찬 세상에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결국 사랑이 결여된 삶의 무의미성을 깨닫게 되면서 거짓없이 순수한 어린이의 사랑으로 눈은 돌리게 된다. 그의 통

9) Henry Anatole Grunwald, ed., *Salinger: A Critical and Personal Portrait*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2), p. 90. 재인용.
10) James Lundquist, *J. D. Salinger*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1979), pp. 4-5.
11) Clinton W. Trowbrige, "The Symbolic Structure of *The Catcher in the Rye," Sewanee Review*, LXXIV (Summer 1966), p. 682.
12) Dan Wakefield, "Salinger and the Search for Love," *New World Writing,* No. 14. (December 1958), p. 68.

찰력은 껍데기뿐인 형식주의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부패한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으로 표출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교육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 이해의 부족

주인공 Holden은 다섯 과목 중 영어를 제외한 네 과목에서 낙제를 받아 그의 네 번째 학교인 Pency 고등학교를 떠나게 된다.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그는 학교라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허위와 거짓만이 난무함을 발견한다.

먼저 Pency Prep School의 Thummer교장을 예로 들어보자. Old Thummer교장은 학생들에게 토요일의 저녁식단으로 꼭 스테이크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다음 날 일요일에 부모들이 면회 와서 아이들에게 어제 저녁 메뉴를 물어보면 '스테이크'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Elkton Hills학교에 있을 때의 Mr. Hass교장은 일요일에 방문하는 학부모의 옷차림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는데서 Holden은 진정한 애정의 결핍과 가식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현실에 혐오감을 느낀다.

Pency의 졸업생이고 "Ossenburg Memorial Wing"이라는 기숙사를 학교에 기증한 Old Ossenburg 또한 전형적인 "Phony barstard"이다. 그는 학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고급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찾아와 가식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가 연설하는 동안 Thummer 교장은 단상에서 학생들의 태도를 감시하듯 지켜보며 Ossenburger에게 비굴할 정도의 충성을 보인다. 사람보다는 물질이 더욱 중요하며 결국 그러한 물질적 가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 하나의 예로 Pency Prep 고등학교의 Spencer 선생을 예로 들어보자. Holden은 성적부진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자 작별인사를 하려고 Spencer 선생을 방문한다. 그러나 퇴학당한 학생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기 전에 Holden이 쓴 역사 시험답안을 읽는 Spencer 선생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Spencer 선생 역시 결점을 지는 보통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면 노인교사와 청소년 학생간에 대화는 있되 언어는 부재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즉, 그들 사이에는 서로 친밀하면서도, 어떤 의미 있는 진정한 교류도 일어나지 않는다.

> 선생은 귀를 기울이지조차 않고 있었다. 대체 선생은 이쪽에서도 뭐라고 말하더라도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거든.(5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무관심은 서로간 대화의 교류를 단절시키며, 대화의 부재는 그들 사이의 불신의 벽만 쌓이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원활한 관계를 맺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할 대화가 오히려 서로간에 거리감과 혐오감만을 주는 무서운 무기로 전환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Spencer선생의 육신이 노쇠함이 그의 정신적 배려의 결핍과 함께 강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Holden이 Spencer선생보다 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13]

---

13) Jonathan Baumbach, *The Landscape of Nightmar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65), p. 59.

또한 Spencer 선생이 "매우 치사한 짓"(a very dirty trick)에 지나지 않는 설문을 하여 다그치는 바람에 Holden은 진력이 나서 뉴욕의 Central Park 호수에서 놀던 '오리떼'를 생각한다.

겨울에 얼음이 얼면 이 '오리떼'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은 이제 막 사회로의 출범을 위해 Pency 고등학교를 떠나려는 순간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퇴학당한 Holden이나 얼음이 얼어 위기에 직면한 오리 같은 처지이다. 겨울이 오고 얼음이 얼어, 먹이도 둥지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오리가 구조원이 나타나 구조해 주기를 바라듯 퇴학당하고 갈곳 없이 미로를 헤매는 Holden의 처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구세주의 출현이다. 트럭을 타고 온 사람이 오리를 겨울 동안 동물원으로 싣고 가 보호하든가 아니면 오리 스스로가 따뜻한 피난처로 날아가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듯, Holden도 엉터리 투성이의 세계로부터 정신적인 피난처를 찾고 싶은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면서 Spencer 선생과의 대화에서 그는 "그것은 모름지기 양극의 대극점으로 갈라져 있는 것과 같아(59)"라고 거짓없이 실토하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Spencer선생과의 대화단절을 암시한다.

이처럼 사제지간에서도 대화의 단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제지간의 인간관계회로를 찾지 못함으로써 그 당사자인 Holden의 마음속에서는 불신과 냉소가 싹트게 되고 상호 적대감만을 일으키게 된다. 즉 대화가 인간을 연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호적대감을 일으켜 현실의 인간관계에 불신만을 뿌리내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미성숙하고 방황하는 사춘기 소년으로서 자신의 수호자를 양친,

교사, 친구 중에서 찾으려 해보았으나, 아버지는 법률고문으로 바쁘고 어머니는 동생 Allie의 죽음이후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친구 Ackley와 Stradlater에게서는 실망을 느끼고 마지막 기대를 Antholini 선생에게 걸어보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Holden에게 실망감만 안겨줬을 뿐이었다.

Holden과 Antolini선생이 만나는 장면은 Holden의 희망과 기대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Holden에게 있어서 Antolini선생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일차적으로 그가 도덕적 양심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Holden이 전에 다니던 Elkton Hills 고등학교의 영어교사였고, Holden의 형인 D.B.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Holden이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 생각했던 인물이다. Elkton Hills에서 거만한 녀석에 대해 건방진 자식이라고 한 말을 끝까지 취소하지 않고 창 밖으로 뛰어 내인 James Castle에게 자기 코트를 벗어 그를 싸 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인물이 바로 Antolini였다. 그런 점에서 그는 Holden을 '붙잡아줄'(catch)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었던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Holden이 Antolini 선생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미 취해 있었으며 현재 대학의 영어강사로 돈 많은 부인과 재혼한 상태였다. Antolini부부가 남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과장해서 표현하기 좋아하는 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체하는 속물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Holden에게 있어 Antolini의 또 다른 중요성은 그가 Holden의 삶을 올바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인데, Antolini가 계속 술을 마시면서도 Holden에게 해주는 말은 Holden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네가 뭔가 아주 끔찍한 내리막길로 추락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
> …선생님은 다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
> “네가 추락해 가고 있는 내리막길은 특별한 종류의 끔찍한 것이야. 추락하는 사람은 본인으로서는 밑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거나 들을 수 없는 거란다. 계속 추락하기만 하는 거지. 그런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이런 저런 시기에 환경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거지. 아니면 환경이 줄 수 없다는 게 그들만의 생각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찾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린 거지. 내 말 듣고 있니?” (263-2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기에서 Antolini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을 불가피하게 포기해야만 할 때 인간은 삶의 다른 가능성을 포기한 채 세상에 대한 환멸 속으로 빠질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의 주변 환경이 제공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즉 순수함이라든지 때묻지 않은 사랑 등이 실제로 있다는 깨달음은 그러한 환경 속으로의 추락을 저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Antolini는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정신분석학자 Wilhelm Stekel의 다음과 같은 경구를 적어주는 성의를 보인다.

"이게 그가 한 말이야. '미성숙한 사람의 표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뜻깊게 죽기를 바라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의 표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천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265)

이 구절이 Holden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분명하다. Holden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어린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꿈은 마치 피터팬처럼 그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 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또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Holden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자신의 순진하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보존하기 위해 순교자 또는 구세주 역할을 떠맡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4] 그렇지만 실제로 Holden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주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다.

Antolini는 Holden만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 혼란을 겪고 두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해 역겨워지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Holden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도덕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얘기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결코 너만 그런게 아니고, 넌 신이 나서 알고 싶어질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너처럼 도덕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온 거란다. 다행히도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지. 너는 그들에게서 배우게 될 거야.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언젠가 네가

14) James Lundquist, *J. D. Salinger* (New York: Frederick Unger Publishing, 1970), p. 47.

남에게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남도 너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거야. 그건 멋있게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구. 그리고 그건 교육이라고 할 수 없지. 그건 역사야. 시라구." (266)

Antolini는 Holden이 처한 현 상황은 악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인간과 세상이 불완전함을 알게 되면서 얻게되는 자연스런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진실 추구의 행보를 멈추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덧붙여, 도덕적, 정신적 방황을 통해 얻은 고귀한 진실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Holden의 이상주의는 엉터리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도 건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Holden에게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규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일반적인 다른 학생들처럼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길 바라는 Antolini 선생의 충고는 현 세계에서 모든 것을 참아가며 소박하게 살아가라는 유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조언은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지극히도 당연한 충고일 수 있다. 그러나 Holden이 바라는 것은 수호자이지 조언자가 아닌 것이다.

Holden과 Antolini 선생 사이에 놓인 대화단절 또는 의사소통 불능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Holden은 Antolini의 긴 이야기를 듣고 잠에 떨어진다. 그러나 얼마 후 Antolini가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음을 느끼고는 벌떡 일어나 선생의 집에서 뛰쳐나온다. Antolini가 알콜중독자이며 동성연애자일수 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 사건은 Holden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덕적 양심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olden이 처한 궁지를 가장 잘 파악했던 Antolini가 동성연애자일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는 이 세계가 진정

함과 비진정함으로 뒤섞여진 곳이라는 것을 Holden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선생의 변태적인 동작에 깜짝 놀라 그 집을 뛰쳐나오면서 Holden은 정신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을 후회하기도 한다.

>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점점 더 우울해졌다. 즉 선생댁으로 되돌아가야 마땅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혹은 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내 머리를 어루만졌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머리 속이 혼돈해졌다. (273)

이처럼 Holden이 Antolini 선생의 집을 뛰쳐나와 Antolini 선생의 본래의 의도에 관해 생각해 보는 점은 그의 정신적으로 성숙되어감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그는 Antolini 선생이 단순히 잠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기를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James Castle에 대해 보여준 Antolini 선생의 행동은 Holden의 그러한 의아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제 Holden은 Antolini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일에 있어서 절대적이거나 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여러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인 평형상태와 여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Ⅴ.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 허위와 기만

Holden은 12월 어느 음산한 오후에 Tomson Hill의 Crazy Cannon에 서서 축구경기를 응원하는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서 Pency를 떠나자고 결심한다. 이 때 석별의 정을 나누려는 Holden은 그의 몸의 반은 사춘기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성인세계에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Holden에게 있어서 Pency가 10대의 세계라면, 이제 그 곳을 떠나려는 순간은 순수한 세계에 고별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Holden이 두 세계에 걸쳐 서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며, 한 세계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춘기의 세계라면, 다른 세계는 그가 진입하기 두려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성인 세계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답답함 그리고 반발 심리에서 Holden은 어른세계엔 이런 현상이 없을 것임을 기대하고 무작정 그 세계로 뛰어들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포용적이지도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도 못함을 인식하게 된다. Holden은 Pency학교를 떠나 그 주변의 허위와 엉터리로 우글거리는, 즉 'phony'로 가득찬 세상을 여행하면서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을 경험한다.

쾌락과 불신이 만연하는 도시에서 Holden은 오히려 기대했던 환상이나 매력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와 무기력함, 속물성 등만을 접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학교에서 경험한 phony들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많은 phony들의 환경으로 뛰어든 Holden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멍들어 감을 의식하고 이

시기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grand'란 단어처럼 형식적인 말들, Hass교장의 위선에 찬 미소, 장의사 선배의 지루한 연설, 진실한 척 데이트 상대를 녹이는 Stradlater의 기술, 예배시간만 되면 갑자기 변하는 목사들의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등 이 모든 것들이 Holden에rps 'phony'에 해당된다. 즉 'phony'란 말은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Holden이 내뱉는 일종의 경고가 섞인 또 다른 반항의 메시지이다.

더 나아가 Holden은 이처럼 엉터리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의 성실과 진실을 재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그래"(It really is) 또는 "나는 정말 그랬어"(I really did)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회에 동요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S. N. Behrman은 "그는 그 자신이 엉터리들의 세계로 빠질 위험에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거듭 거듭 엉터리들을 언급해야만 했다"[15]라고 평하고 있다. Arwin Wells 교수는 이러한 언어적 특색을 "verbal gestuer"라고 규정하고, 여기에다 상징법을 병치(juxtaposition)시킴으로써 Holden이 갈등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의미를 생동감 있게 부각시키는데 성공적이라고 논평한다.[16]

Pency에서의 어느 날 흰 눈이 내려 모두 눈싸움을 벌이면서 즐기고 있을 때 Holden은 때마침 기숙사의 음식도 구미에 맞지 않고 해서 Mal Brossard, Ackley와 함께 Agerstown에 가서 햄버거나 먹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5) Donald P. Castella, "The Language of *The Catcher in the Rye*," *American Speech*, XXXIV (October, 1959), pp. 172-181.
16) Arvin R. Wells, "Huck Finn and Holden Caulfield: The Situation of the Hero," *Ohio Univ. Review,* 11 (1960), p. 41.

영화구경이나 할까 하고 나선다. 그는 Ackley를 기다리는 동안 눈을 뭉쳐 던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뭉치고 보니 던지고 싶은 호기심에 길 건너편에 정차해 놓은 차에다 던져보려 했으나 "그 차가 너무 뽀얗고 좋았기 때문에"(The car looked so nice and white)기에 던지는 것을 멈춘다. 길옆에 설치된 수도전에 눈뭉치를 던지려다 그것 또한 번질거리는 신품이었기 때문에 멈춘다. 그러던 중 마침 버스가 와서 부지중에 그 눈뭉치를 들고 차에 올랐지만 운전사는 기어코 그 눈뭉치를 차창 밖으로 버리게 한 다음에야 차를 출발시켰다. 길 건너편 차에도, 그리고 수도전에도 눈뭉치를 던지지 않은 자신인데 절대 던지지 않겠다고 말해도 그 운전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하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아"(People never believe you.)라고 잘라 말하며 다시 불신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olden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현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며, Holden 자신은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상 자체가 길을 가로막고 또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기숙사에서 방을 함께 쓰는 Stradlater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싸우고 난 뒤 옆방으로 건너가 Ackley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다.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왜 싸웠는데?"
> 그는 집요하게 물어댔다. 참으로 지겨운 종자였다.
> " 형 때문이었어요."

" 나 때문에? 왜?"
" 스트라드래이터 형이 형보고 지저분한 놈이라 하기에 내가 편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싸우게 된거죠."
" 그 자식이 정말 그랬어? 농담 아니지?"
애클리는 대번 흥분했다. 나는 농담이라고 말했다. 그리곤 얼른 앨리의 침대에 가서 누워 버렸다. 빌어먹을 모든 게 싫고 지겨웠다. (98-99)

이런 의사소통 불능은 남을 배려하는 관용이나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하는 노력, 애정이 깃들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Holden이 찾고자 하는 '인간애'가 없음에 대해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이 드러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기숙사 동료들조차 Holden의 외로움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Holden을 외롭고 절망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수업시간마다 교실 뒷자리에 들어와서 참관이란 걸 하는 교장 선생님의 억압적인 분위기 게다가 거기에 꼼짝하지 못하고 아부하는 선생님들, 비밀 우애회 따위를 만들어 가난하고 멍청한 동료들을 소외시키는 학생들 같은 사이비들과 비열한 녀석들로 가득 차 있었고, Holden은 이 모든 것들을 구역질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어른들의 위선과 속물성에 일치감치 물들어 버린 동료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다. 아직 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덜 떨어진 동료들도 말이 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방을 쓰는 Stradlater는 전자의, 옆방 동료 Ackley는 후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언제나 남자다운 매력을 과시하는 Stradlater는 온통 자신감과 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세에 빠져 있다.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저분한 세면도구와 빌린 옷, 빌린 차에다 복잡한 여자관계가 전부이며 데이트하는 여자애가 비참한 시절을 보냈건, 어떤 성격을 가졌건 알 바가 아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색정적인 얘기뿐이며 Stradlater의 그런 모습은 Holden을 화나게 한다. Ackley도 예외는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라도 눈꼽만큼도 없는 이기주의자들에다가 머리 속은 텅 비어있는 멍청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학교에서 Holden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비록 열등생에다 문제아였으나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Holden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허위와 기만, 속물성으로 가득찬 내면세계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

Holden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대화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그의 정신은 Whoonton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퀘이커 교도인 친구 Arthur Child가 예수를 배반한 유다에 대한 논쟁을 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즉 Holden이 Child에게 유다는 자살한 다음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Child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는 데 여기 대해서 Holden은 자기만의 독특한 견해를 피력한다.

> 그 점에서 나는 차일드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
> "나는 천 달러는 걸어도 좋으니까 예수는 절대로 유다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야. 지금도 나는 걸겠어. 만일 천 달러가 있다면 말야. 그러나 그들 사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유다를 지옥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빨리. 그러나 뭣

이고 걸겠지마는 예수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했을거야.” (163)

이토록 Holden의 내면은 모든 것을 포용하여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본심이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생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것은 Holden이 Central Park의 연못에 살고 있는 오리떼들이 겨울이 되어 연못이 얼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동정하여 네 번이나 애정을 담고 말할 때 잘 나타난다.

뉴욕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 그 작은 호수 말이예요. 그런데 그 연못이 얼면 오리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141)라고 물어본다. 그러나 운전사는 그런 질문을 하는 Holden을 이상하게 여길 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행 동안에도 그 의문은 계속 되었고, 다른 택시기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신경질적이긴 했지만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 물고기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바로 그 호수 속에 있단 말이요”(141)라고 그가 대답함으로써 질문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 궁금하냐는 투다.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계단과 벽과 화장실마다 ‘X하자’ 같은 욕이 쓰여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을 만큼 무신경한 사람들이다.

결국 인간 본질에 대한 무관심으로 Holden은 홀로 그 해답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지친 육체와 피폐해진 정신을 이끌고, 공원의 연못으로 가서 그가 직접 확인한 것은 참담함이었다. 어느 곳에서도 오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오리가 Holden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비슷한 처지여서 동정심을 자아내는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오리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우아함을 대표하고 있다는 주장, 또 오리가 어떤 정신적 평형 상태를 상징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운전사와의 대화에서 볼 때, Holden의 오리에 대한 관심은 겨울이 되었을 때 오리를 돌보아줄 어떤 자비로운 힘의 존재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그가 관심과 궁금증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오리가 물위에 떠있는 모습이 아니라 겨울이 되어 호수가 얼어붙게 될 때 오리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이며,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 또한 오리를 구원해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자비로운 힘 또는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이상세계이기 때문이다.

겨울의 꽁꽁 얼어붙은 호수와 같이 사랑과 온기가 없는 냉랭한 현실에서는 어느 것도 살아 숨쉴 수 없다. Holden은 얼어붙은 호수를 따뜻하게 녹일 봄을 불러오고 다시 오리가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참사랑의 불씨를 찾으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뉴욕의 나이트클럽을 전전하고 다니다가 자기 숙소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 벨보이가 “어때 친구, 재밌게 보낼 생각 없나? 한번에 5달러, 하룻밤에 15달러야.”(152) 라고 유혹했을 때 그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얼떨결에 수용한다. 그리고 곧 Holden은 ″그것은 정말 내 신조에 어긋나는 일이었어. 그러나 우울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153)라고 후회의 빛을 보이며서도 “네가 아주 우울할 때는 너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153)라고 자기 변명을 한다.

Sunny라는 창녀가 자기 방으로 찾아왔을 때 척추 수술을 받았다는 구실을 대어 실제 행위만을 기피하였으나, 결국엔 화대로 뚜장이 Maurice에게 폭력세례를 받고 5달러를 더 갈취 당한다. “한번에 5

달러, 하룻밤에 15달러"(152)란 약정이 어느 틈에 탈바꿈하여 10 달러로 변한 것이다. 더욱이 그 때문에 시시비비를 벌이다가 폭력세례까지 받고 보니 Holden의 심정은 말할 나위 없이 의기소침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상상에서나마 명예회복을 위해 복수하는 촌극까지 펼쳐본다.

Maurice와 Sunny가 나간 후에 몸을 웅크리고 욕실로 가는 도중에 복부에 탄환을 맞은 시늉을 하며 서부극의 카우보이처럼 욕실에서 위스키를 들이키고 원기를 찾은 다음, 호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간다. 엘리베이터 문전에 이르러 벨을 누르니 문이 열리면서 Maurice가 나타나는데 그를 향해 권총을 겨누니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Holden은 무자비하게 난사하여 살해한다. 역시 비틀거리며 자기 방에 돌아와 Jane Galligher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게 한다는 웃음을 자아내는 촌극을 상상한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역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자살하는 거야."(169)하고 말하며 실망과 절망에 찬 자신의 심리상태를 나타내준다.

또한 Holden은 '만나서 반갑다' 라거나 '행운을 빈다' 또는 '어머니는 어떠시니?' 와 같은 형식적인 말을 하거나 악수와 포옹을 나누는 따위의 말과 행동-즉 진심을 담지 않은 어떤 말과 행동-은 그에게는 위선으로 비칠 뿐이기 때문에 정말 싫어한다. 더욱이 고등학교를 네 번이나 옮겨 다닐 정도로 문제아인 자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느낀다.

나는 해군 장교와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다는 인사를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빌어먹을 처참한 심정이었다. 조금도 반가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늘어놓아야 하다니!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런 말은 계속해야 할 것이다. (147)

대화의 단절은 또한 Sally와의 데이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Sally와 그 밖의 어른들이 쓰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나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등의 말과 같이 진심이 없는 의례적인 말을 수용할 수 없다. 그는 이런 말들은 엉터리 투성이의 성인 세계의 언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표현들에는 단지 위선과 허식만이 담겨져 있다고 여긴다.

Sally가 다른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 그 자체에서도 진부함과 가식된 요소만이 담겨져 있다고 고발한다. 그는 서슴치 않고 “그것은 여태껏 들어온 중에서 가장 김빠진 대화였다.”(204)라고 엄격히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Holden은 가식과 허식과 엉터리가 판치는 세상을 등지고 한적한 산 속에서 둘 만의 삶을 누리자고 Sally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샐리,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이 곳에서 도망치자・・・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오두막 같은데서 머무르는 거야, 돈이 떨어지면 내가 일자리를 구할게. 어때, 우리 둘이서 냇물이 흐르는 곳에 산다면? 그런 다음 결혼이든 뭐든 하면 되잖아. 겨울이 되면 땔나무는 내가 팰게. 우리는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때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201)

이 대화에서 Holden은 Sally에게 함께 떠나서 결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Holden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상추구의 실패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는 항상 Jane Gallagher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Sally에게 전화를 하고 만다. 체스놀이에서 왕을 맨 뒷줄에 늘어놓고 사용하진 않는 고집스러움을 지닌 Jane이 순수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Sally는 Holden이 보기에 "엉터리들의 여왕"(the queen of phoniness) 라고 칭한다. Clinton은 "Sally는 사회의 이중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17]라고 평하며 Sally의 거짓스런 몸짓에서 나오는 관능적 매력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Holden 자신도 "그녀는 나에게 심한 고통을 주지만 매력적인 모습을 지녔다."(171)라고 평하며 Sally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Holden의 제안에 담긴 의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Sally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202)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Holden 역시 실망을 금치 못하고, "・・・내 말은 전혀 다르다는 거야. 넌 내가 말하는 걸 전혀 몰라."(202), "사실 난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엉덩이가 들썩거려."(203)라고 말하며 대화를 종결짓는다.

위의 Sally와의 대화에서 Holden은 서부로 함께 가서 숲 속의 오두막을 짓고 살자는 제안을 하는데, "숲 속의 오두막 집"(a cabin in the wood)과 농아자(deaf-mute)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Buddism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어떤 학자는 "서부 어딘가에 있는 숲 속 오두막집의 형태는 동양의 숲 속 불교 사원의 형태와 유사하다." 고 해석하고 있으며, Tom Davis는 "Holden의 모습은 불교의 자비심 많은 보살의 이미지와 같다"[18]고

17) *Ibid.*, p. 685.
18) Tom Davis, "J. D. Salinger; Some Crazy Cliff, Indeed," *Western Humanities*

설명하며 Holden에게서 부처의 이미지를 찾는다.

Holden은 자신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성인사회에서 탈출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사회가 주는 편리함과 매력을 상징하는 Sally라는 인물을 데려가고자 한 것과 같이 자신이 'phony'로 우글거리는 사회에서 자라고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딜레마적 상황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와 타락한 현실세계는 공존할 수 없고 Holden은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고 있다. "그녀를 본 순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미친놈이다. 그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반한 느낌이 들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니, 난 미친놈이다. 나는 그 점은 시인한다."(192)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내는 데서 둔감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부조리와 모순은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무리 발버둥쳐도 쉽게 버릴 수 없는 사회적 습관과 압력에 자신도 얽매어 있음을 자각한다. 결국 Holden은 이상과 현실의 공존의 불가능성을 자각하며 Sally를 거부하기에 이르며, "설사 그녀가 같이 가자고 했다 해도 나는 그녀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204)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상세계를 찾을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다.

Holden은 자신의 미성숙과 한계를 느끼게 되고, 타인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그는 Whooton고등학교 시절에 그의 선배였던 Carl Luce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전화 다이얼을 돌린다. Carl Luce는 Whooton 재학 시절 지능 지수가 가장 높았던 학생으로 Holden보다 세 살이나 위였고, 지금은 중국 기혼 여성을 여자

Review, XIV (Winter 1960), 97.

친구로 두고 있을 정도로 성적인 면에서의 세련됨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성숙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지식을 비유하고 있는 Luce라는 인물은 모든 면에서 Holden보다 뛰어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정신적인 방황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 "형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난 지금 형의 충고가 필요해요. 난 지금 몹시……."
>
>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
> "코울필드. 우리 그냥 술이나 마시며 조용히 얘기나 하자. 뭐 그런……."
>
> "알았어요, 알았어."
>
>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얼른 대답했다. 그는 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는게 분명했다. 그것이 소위 머리 좋은 작자들의 인간성이었다. 그런 인간들은 스스로 내키지 않으면 절대로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는다.
>
> 나는 할 수 없이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216)

"그는 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눌 마음이 없는 게 분명했다."(216)라는 Holden의 말처럼 Luce는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Pency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야간 열차로 뉴욕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시가지를 방황하면서 "나는 정말 외롭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자살하는 것이다."(169)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친구를 전화로 불러내고자 한다. 전 작품을 통해서 Holden은 공중전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박스에서 전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15회나 거듭되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다. 현대인의 의사소통 불능에서 오는 비극의 모습들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한 것이다.

만나는 친구마다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위에 거슬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Holden을 더욱 어두운 심연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 술집에서 만난 웨이터, 댄서, 영화배우, 사기꾼, 창녀 뚜쟁이 등 모두가 위선자 아니면 변태 성욕자들이었다. 도시생활의 이면은 남녀간의 무질서한 성욕이 난무하는 무대요, 변태와 위선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한때 믿음직스러웠던 Antolini선생에게도, 그리고 사회 어느 곳이든 눈에 뜨이는 벽 위의 낙서에서도 phonies은 언제나 따라 다녔다. 이러한 사회에 뛰어든 Holden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엉터리 세상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순수의 세계를 찾아 헤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의사소통의 진실성 : 애정과 이해

Holden은 너무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기 때문인지 사회는 엉터리와 위선, 기만, 속임, 더러움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물질 문명과 속물 근성 그리고 추악한 세속주의에 혐오를 느끼며 에에 반항한다. 즉 Holden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엉터리이거나 사기꾼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Holden과 주변 인물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즉 의식과 언어의 교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그 결과 대화의 단절과 감정의 대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Holden은 인간 본래의 본심을 인간의 순수한 애정이나 성실을 접했을 때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그가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학업부진으로 퇴학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얼마 전에 이런 사정을 모르는 어머니가 보내준 아이스 스케이트를 손에 들고 그것을 사줄 때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 내 어머니가 2, 3일 전에 보내준 아주 신품인 스케이트화를 꾸려야 했다.. 그건 정말 우울했다. 어머니가 스폴딩 가게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이것저것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눈에 선했다. 여기엔 나도 매우 슬픈 생각이 들었다.(104)

평소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때로는 신경질 적인 어머니에 대해 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탁히 여기지 않던 Holden은 스케이트화에 담긴 어머니의 진심과 애정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그 다음은 Holden이 뉴욕역 구내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카고에서 왔다는 두 수녀들의 허위의 장식을 버린 희생적인 생활 모습에 감동하여 모금할 때 써달라고 기꺼이 헌금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데 그 때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에 자책감을 느낀다.

>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 두 수녀들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나는 정말 어리석고도 당돌한 짓을 하고 말 것이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럼 잘 가시오 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일어섰을 때, 그만 잘못하여 수녀들 얼굴에다 담배연기를 뿜었던 것이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고 만 것이다. 나는 미치광이처럼 사과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태도는 지극히 정중하고 훌륭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179)

다음은 그가 브로드웨이를 헤매고 있을 때 교회에서 들어오는 길인 한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섯 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앞을 걸어가는데 그 어린애가 무심코 부르고 있는 노래를 듣고 동심의 세계에 접하게 되었을 때이다.

> 그 애는 걸어가면서 내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나하고 가까이 바싹 다가갔다. 그런데 부르고 있는 것은 「호밀밭에서 붙잡힌다면」이라는 노

래였다. 목소리도 아름다운 귀여운 노래였다. 그 애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동차는 붕붕하며 스쳐가고 브레이크 거는 소리가 울렸다. 부모는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는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181-182)

이 모습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그리움에 못 이겨 Holden은 그날 밤늦게 부모의 아파트로 몰래 들어간다. 부모를 대면할 염치도 없어 그는 여동생 Pheobe에게만 Pency학교에서 성적부진으로 퇴학당하게 된 이야기와 학교가 온통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 견딜 수 없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린이의 순진함과 꿈을 보호하는 자로서, 즉 넓은 호밀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봐 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겠노라는 그의 꿈을 밝힌다. 이는 Holden이 내면의 세계에서 지향하는 이상향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맞서 때로는 Holden도 위악적인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뱉어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절망과 외로움만 커졌다. 아직은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위선과 비열함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Holden은 자신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Stradlater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빼앗아가고, 호텔의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얻어맞고 돈까지 빼앗겼지만 겁이 나서 변변하게 싸움 한번 벌이지 못했다.

대신 Holden은 참을 수 없이 분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면 백혈병으로 일찍 죽은 남동생 Allie를 떠올렸다. Allie의 빨간 머리와 총명한 얼굴, 웃는 모습, 그 애와 같이 했던 일 등을 떠올리며 허공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향해 큰 소리로 Allie에게 말을 걸다보면 Holden은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음을 느낀다. 어린 여동생 Pheobe 또한 마찬가지다.

> 피비는 참으로 귀엽고 똑똑한 아니다. 나는 피비처럼 똑똑한 아이는 본 적이 없다. 학교 성적도 줄곧 A 다 . 사실 우리 식구 중 바보는 나밖에 없다. 형 D.B는 작가이고, 전에 말했던 죽은 동생 앨리는 천재였다. 그러니까 나만 바보인 셈이다.
>
> 피비는 앨리처럼 빨간 머리인데 여름에는 짧게 깍아버리곤 한다. 그 짧은 머리를 귀에 딱 붙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특히 앙증맞게 나온 귀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언젠가 독자들에게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 · · · 피비는 누구와도 마음이 잘 통한다.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애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122-1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heobe는 영리하고 귀여운 아이다. Pheobe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애는 나를 무척 좋아하지”(123)라고 생각하며 Holden의 발길은 Pheobe가 있는 집으로 향한다.

Pheobe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믿어주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정이 많은 10살 난 소녀다. 그래서 Holden은 Pheobe가 잠들어 있는 방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외롭지 않으며, 폐렴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떨쳐버릴 수 있다. 또한 Pheobe는 Holden이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퇴학당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

Holden이 Pheobe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애와 말이 통

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세계(술, 담배, 여자 등)를 넘나들며 금지된 행동과 위악적인 몸짓을 서슴치 않던 Holden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린 Pheobe라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Pheobe는 Holden의 처지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Holden이 남몰래 자기 집으로 들어가 동생 Pheobe를 만나고 부모에게 들키지 않게 집을 나와 은사인 Antholini선생을 만나러 가려 하자 Pheobe는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크리스마스 용돈을 전부 준다. 이 갸륵한 마음에 Holden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 그러자 나는 갑자기 울어버리고 말았다.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울었지만 운 것만은 사실이다. 내가 갑자기 울었을 때 피비는 혼비백산했다. 그리고 내게 와서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했지만 울기 시작하면 그렇게 간단히 멈출 수도 없으니 말이다. ・・・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256)

Holden의 퇴학을 알게된 후 “오빤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그러냔 말이야?”(241)라는 Pheobe의 질문에 Holden은 세상을 향한 허무주의적 혐오의 정도를 고백한다.

> “오빤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그러느냔 말야?”
> 왜 자꾸 퇴학당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 “제발 그만! 피비. 다들 그러는 통에 정말 죽겠어.”

나는 사정했다.

"이유는 많아. 그 학교는 이제껏 다니던 학교 중에 가장 나빠. 멍청이와 저질이 우글거리지. 게다가 그 학교는 얼마나 치사한 자식이 많은데. 넌 아마 그런 치사한 자식들을 본적이 없을 거야. ・・・ 교장은 항상 30분 정도 앉아 있곤 했는데 마치 감시관 같은 자세였어, 비스듬히 앉은 채 너절한 농담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런데도 스펜서 선생은 연신 싱글벙글 웃는 거야. 빌어먹을!" (242-243)

Holden이 왜 학교에 적응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며 세상에 대한 불만의 정도를 토로하자, Pheobe는 "오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싫어하잖아"(244)라고 대꾸하며,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대보라고 추궁한다. 그러나 Holden의 머리 속에는 낡은 바구니에 성금을 모으며 돌아다니는 수녀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James Castle에 대한 기억만이 맴돌 뿐이다. 이름을 대보라는 Pheobe의 채근에 Holden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난 앨리가 좋아." 나는 얼른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좋아. 너랑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246)

이 대답은 Pheobe에게 만족을 주진 못했지만, 그에게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가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준다.

그가 정말 좋아하고 그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원천은 죽은 동생 Allie와 지금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동생 Pheobe와 같은 어린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들이었다. Dan Wakefield Robert는 “Holden은 오로지 어린이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19] 라고 말하며, 그 이유로는 어린이들은 사랑을 마비시키는 거짓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즉, Holden은 자신의 꿈과 이상이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물질주의로 병든 New York을 헤맸던 어린이들의 거짓 없는 순수함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참사랑을 세상에 전해 줄 힘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의 순수함은 산업사회의 물질만능적 가치관, 무관심, 기만 등에 의해 사회 밖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Peter Seng이 지적하듯이 “Holden이 꿈꾸는 세상에서 최고의 시민은 보도 바깥쪽을 따라 걸으며 ‘If a body catch a body′를 부르는 어린 소년들일 것이다.”[20] 무관심한 부모님들과 떨어진 채 차가 윙윙거리는 도로를 걷던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회상하게 된 Holden은 앞으로 어린이의 순진함과 꿈을 보호하는 자로서 즉 넓은 호밀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봐 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겠노라는 그의 꿈을 밝힌다.

> ・・・ 어린 아이들은 놀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그럴 때 내가 있다면 얼른 붙잡아 주는 거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인 셈이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그런거야. (24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 Wakefield, 68-85.
20) Peter J. Seng, "The Fallen Idol: The Immature World of Holden Caulfield," *College English*, XXIII (December 1961), 205.

‘호밀밭의 파수꾼’으로서의 Holden의 운명과 사명은 자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에서 좌절로 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좌절의 불씨는 Pheobe와 나누는 그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 “그 노래를 알아. <어느 누가 호밀 밭을 헤치고 오는 자를 잡는다>는 노래말야. 난・・・..”
>
> ・・・그것은 <어느 누가 호밀 밭을 헤치고 오는 자를 만나면>이잖아 라고 피비는 말했다.
>
> “그것은 로버트 번스의 시야.”
>
> 그녀의 말이 옳았다. “누가 호밀 밭을 헤치고 오는 자를 만나면”이다.
>
> 그러나 그 때에는 몰랐던 사실이다. (24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 대화에서 ″잡다“와 ”만나다“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만나다“를 Holden은 왜 ″잡다”로 바꾼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잡는다”다는 것인가? 이 해답은 Holden이 Pheobe에게 해준 다음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 “여하튼 이 모든 어린이들이 이 큰 호밀밭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난 그려보고 있는거야.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몸집 큰 자는 주변엔 없어. 나를 빼고 말야. 난 어느 벼랑 끝에 서있는 거야. 어린이들이 그 벼랑으로 넘어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들을 모조리 잡아채야 해.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마구 치달리다가 가는 곳도 식별치 못하면 내가 어딘가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잡아야 해. 온종일 내가 할 일이란 바로 그것 뿐이야.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은 거야. 얼빠진 짓이

야.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되고 싶은 유일한 소망이거든. 얼빠진 일임을 나도 알고는 있어." (248)

Holden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잡다"에서 주체는 Holden 자신이고 당하는 객체는 "어린이"이다. 즉 Holden이 "파수꾼"으로서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Holden에게 심리적 갈등이 일어난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저지시키려 했고, 그러한 그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상세계를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이 문제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장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283)고 말하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행가방을 들고 나타난 Pheobe로 인해 Holden은 세상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같이 가게 해들라고 조르는 Pheobe에게 학교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만 자신이 서부로 가는데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Pheobe를 통해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생에게서 보게되는 반항적인 행동은 위태롭다. 그리고 여태껏 거부해왔던 성인들의 충고를 흉내내어 Pheobe에게 돌려줌으로써 Holden은 자신이 보여준 부적응의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고, 역시 자신을 걱정해온 성인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지켜온 신념도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라면 버리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와 동시에 부질없는 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인 것이다. 즉, 인간을 사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참사랑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런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 또한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간의 참사랑이며, 세상은 인간으로 인해 아름다울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Holden은 자신이 구하려던 대상에서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Holden은 성숙하고 새로운 눈으로 Pheobe와 다른 어린이들이 회전목마를 타는 것을 지켜본다.

> 피비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자 나는 갑자기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사실 말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큰소리를 마구 지르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하여튼 피비가 멋있게 보였던 것이다. 정말이지 거기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292)

회전 목마를 타고 기뻐하며 돌고 있는 Pheobe의 아름다운 모습과 입고 있는 파란 코트의 아름다움이나 억수 같이 내리는 비의 아름다움을 자기도 모르게 깨닫자 Holden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Pheobe도 목마가 돌아가는 동안만 변치 않고 본래의 모습을 보존할 것이다. 목마가 정지하는 순간 그녀도 목마에서 내려와 성숙해 가는 발전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를 탄 형상이라면 단지 죽은 Allie에게서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수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아름다우며, 호소력을 지닌다.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변하고 사라져버릴 운명을 지닌 순수지만 그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Ⅶ. 결 론

Salinger는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갈수록 산업화, 물질화, 기계화, 제도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부적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형적인 청소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진정으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을 찾을 길 없는 Holden은 결국 시험과 성적의 잣대로 모든 인간을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겨울이 되어 꽁꽁 얼어붙은 연못에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Central Park 연못의 오리처럼 Holden은 학교의 친구나 교사는 물론, 부모까지 사회의 그 누구로부터도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속물주의에만 몰입되어 있을 뿐, Holden의 내면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은 없다. 결국 Holden은 학교에서는 물론 보다 낳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3일 간의 New York시내 여정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대화단절과 의사소통 부재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 요컨대 자신의 순수함과 내면의 자아의식에 머물며 실존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청소년의 세계와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지만 위선과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성인 세계와의 대립과 충돌을 통해 이 소설은 인간의 정신문명이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호 대립적인 대결구도를 보이는 두 세력 즉 순수함의 청소년세대와 세속성의 기성세대간의 Holden의 번민은 계속된다. Holden은 순수함과 부패, 가치와 몰가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진실과 허위라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립구도 속에서 어느 것을 자신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지 선택의 강박 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 소설에서는 Holden이 경험하는 모든 무력감, 고독감, 동생 Allie를 통한 죽음에 대한 강박 관념, 자아의 갈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불능으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감과 고립 등이 소설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위선에 대한 Holden의 혐오로 잘 나타나 있다.

위선과 선의 경계선에서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Holden의 정신적 고뇌는 사회적인 범주보다는 개인적이며 내부적인 특수한 갈등이라 할 수 있겠다.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속물의 세계이고, 이는 현대문화가 갖는 허위, 거짓,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을 대표하며, 지성적 교감, 감성적 이해, 미적 감상 등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Holden과 대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Holden은 그의 주위의 속물세계에 나름대로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은 단지 반항하거나 후퇴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는 반항과 순응, 순수한 표현과 기대, 또 미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이 각각 뒤섞여 있으며 그 가운데 정신적이며 혹은 가족적인 사랑에 의해 속물주의와 화해하며 그 보편적 특성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Peter Pan이 아닌 이상 성장을 막을 수 없으며 결국 성장하여 성인사회로 향해 가는 것이 부동의 인생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Holden의 현실 수용은 성숙에 이르는 당연한 통과의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Holden이 인생 수업을 통해 그의 경험세계의 폭이 넓어짐에 비례하여 그를 괴롭히는 환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도 차츰 해소된다.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게 되고,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처방은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미워하던 기숙사 동료들, 심지어 뚜쟁이며 그를 구타했던 Maurice까지도 그리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Holden은 동생 Pheobe에 대한 애정, 죽은 동생 Allie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은 James Castle이라는 소년이나 스낵바에서 만난 수녀들이나 노래를 부르며 가던 어린이, 심지어 공원의 오리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애정을 갖고 접하는데, 이런 데는 동생 Pheobe의 사랑에 넘친 충고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Pheobe와 대화하면서 그는 비로소 인간애를 인식하고 속물과 화해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세상살이에 지친 인간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사랑의 대화이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도 진정한 안식의 공간을 발견할 수 없고, 사회의 구석구석에 도사린 속물주의에 혐오스런 거부감만을 느끼던 Holden은 천진난만하게 자신에게 다가와 동심의 사랑으로 이해하려하는 동생 Pheobe를 만나며 부정에서 긍정으로 시각적 이동을 하게 된다. 모순 투성이의 미성숙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감싸며 수호천사 역할을 하겠다는 Pheobe의 천진난만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Holden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서서히 열리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둡던 시야도 밝은 햇살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동안의 여정에서 지치고 지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요양원에 들어간 Holden은 이제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에 잔잔히 남아있는 인간미를 느끼며 지금껏 속물 또는 엉터리로만 생각해온 주변의 모든 인물들에 대해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 요컨데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간적인 사랑과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포용의 정신만이 인류 세계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지극히도 보편적인 메시지를 통해 Salinger는 현대산업사회의 정신적 황폐함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이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하겠다.

강제적인 규율과 억압이 없는 학교, 부와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는 선생님, 일류대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식들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부모, 학교와 가정에서 뛰쳐나온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사회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 사회는 Holden과 같은 부적응아를 구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The Catcher in the Rye*에 나타난 주인공 Holden의 여정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 세계에도 유용한 것이라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1. Text :

Salinger, J. D. *The Catcher in the Rye with Essay in Criticism.* Ed Sang-Yong Park, Seoul: Shina-sa, 1979.

2. References:

김 선 희. *"The Catcher in the Rye* 에 나타난 자아발견의 여정."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8).

박 상 용. "J. D. 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 『영어영문학연구』, 제20집, 1981.

양 병 탁. "J. D. Salinger; Holden 과 Franny."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7집, 19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윤 준. "모색과 성장: 성장소설로서의 *The Catcher in the Rye."* 『배재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95.

Baumback, Jonathan. *The Landscape of Nightmar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7.

Bryan, James.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The Catcher in the Rye."* PMLA. LXXXIX (October 1974).

Burrow, David J, Lapides, Frederic R, and Shawcross, John T. *Myth & Motifs i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Castello, Donald P. "The Language of *The Catcher in the Rye."* *American Speech,* XXXIV, (October 1950).

French, Warren. *J. D. Salinger.* Boston: Twayne Publishers, 1963.

Galloway, David. *The Absurd Hero in American Fic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0

Jacobs, Robert G.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Holden Caulfield's Goddam Biobiography." *Iowa English Yearbook,* 1959.

Kegel, Charles H. "Incommunicability in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Western Humanities Review*, XI (Spring 1957).

Leitch, David. "The Salinger Myth." *Twentieth Century*, IXVIII (November 1960).

Ludquist, James. *J. D. Salinger*.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1979.

Mailer, Norman. *The Naked and the Dead.* Austi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Seng, Peter J. "The Fallen Idol: The Immature World of Holden Caulfield." *College English,* XXIII (December 1961).

Steiner, George. "The Saliger Industry." *Nation*, CLXXXIX (November, 1959).

Trowbridge, Clinton W. "The Symbolic Structure of *The Catcher in the Rye.*" *Sewanee Review*, LXXIV (Summer 1966).

Wakefield, Dan. "Salinger and the Search for Love." *New World Writing,* No. 14.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8.

Wells, Arvin R. "Huck Finn and Holden Caulfield: The Situation of the Hero." *Ohio Univ. Review* (November 196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Incommunicability in *The Catcher in the Rye*

Oh, Kyoung-Hwa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In *The catcher in the Rye*, J. D. Salinger indicts the abuses of the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such as mammonism, decadent trend, and human alienation through the view of an adolescent with a keen sight. Holden Caulfield, the protagonist and narrator of the novel is in many ways a typical teenager, skeptical of all authority and with a truculent attitude that stems from a cynical naivete.

Holden's skepticism and resistance are based on his incommunicability he face at school, home, and society in terms of the world of "phony". Wherever he goes, Holden gets disillusioned by the phoniness around him. As a result of his journey into New York, Holden failed to find out any world on which he can take a rest. He is not able to meet anybody who can understand his inner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roared, including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result, Holden becomes paranoid and delusional.

Broken down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Holden is comforted only by the sight of Pheobe and her simple childish pleasures. Pheobe's true love brings him back into the family. Holden becomes to learn a generosity to embrace the world, even the reality of "phonies". Holden seems to harbor some sense of regret over what has happened; he claims that he even misses Stradlater and Ackley.

In conclusion, Holden finds that the mankind's last hope is warm affec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Holden's skepticism changes into a generous acceptance of the reality, recovery the incommunicability he has experienced. It may be said that the ultimate message of the novel is to understand and love each other, especially in order to activate communicability between human being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